

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삼일 만세 운동 또는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.

서울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‘대한 독립 만세’를 외쳤습니다.

그 후 이 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. 한국의 잔 다르크로 불리는 유관순은 17세의 소녀의 몸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습니다.